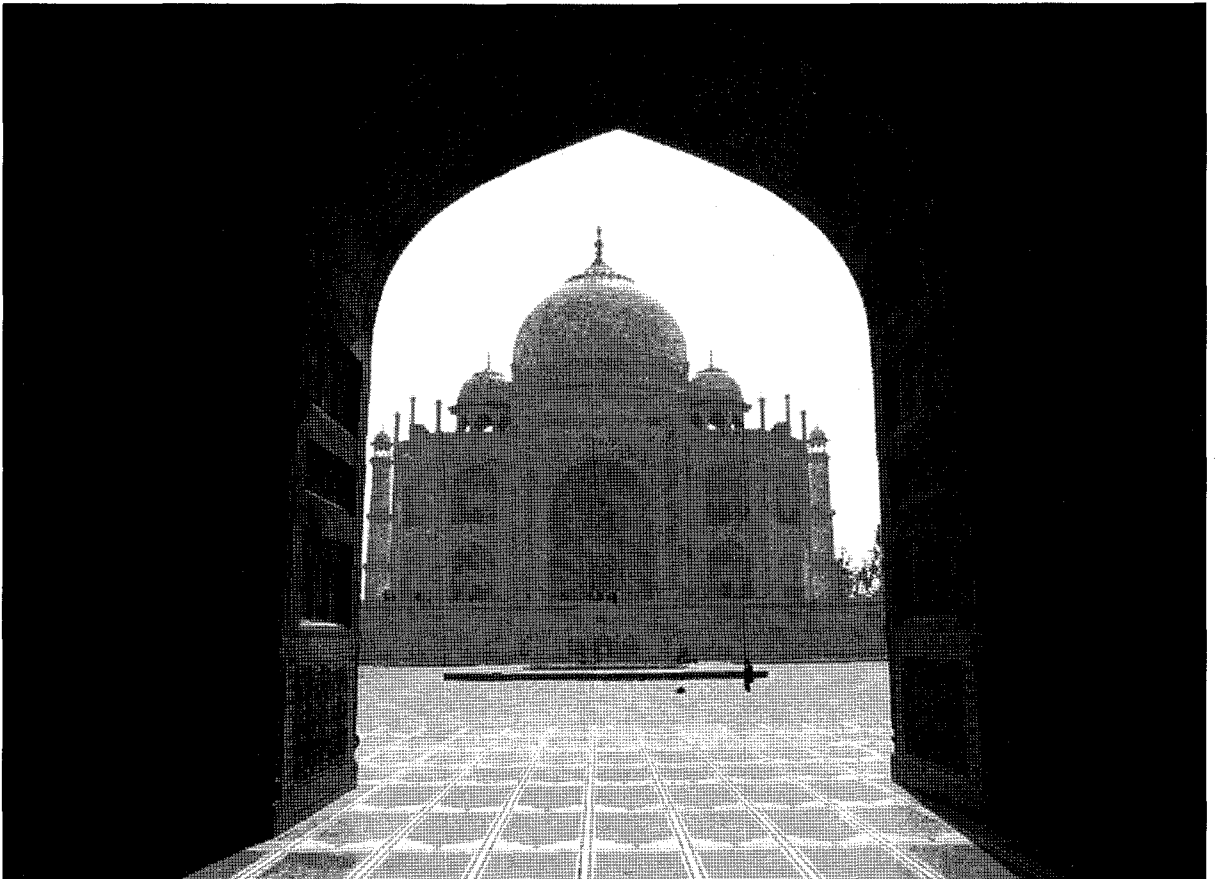




# ‘BRICs’ 인도, 그 나라를 주목하다.

국제축산연구소(인디아) 상주연구원/ 정 일병  
주소: ILBYUNG CHUNG Ph. D / Visiting Scientist of  
Korea / ILRI South Asia Project c/o / ICRIST  
Patancheru 502324 / AP India  
Tel: +91-40-30713622 Fax: +91-40-30713074  
E-mail: i.chung@cgiar.org



### 국제축산연구소(ILRI), 초대 상주연구관으로 인도를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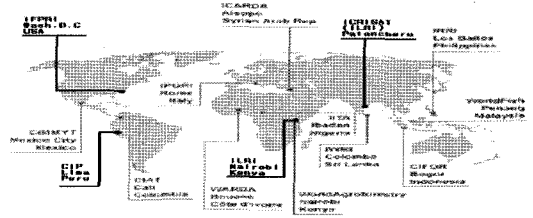
앞으로 2년간, 국제축산연구소(ILRI : International Livestock Research Institute)에서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상주연구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운명을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생각하지도 않았던 인도에 도착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을 보면, 이 곳 인도 힌두교도들이 믿는다는 “전생이나 윤회 등이 있어 운명적으로 내가 이곳 인도로 오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ILRI는 국제연합(UN)산하의 국제금융, 국제무역, 국제수지 및 기술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 부흥개발은행(IBRD)부총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국제 농업 연구 총 연합회 소속 15개 연구소 중 한개의 연구소이다. 따라서 ILRI는 UN산하 농업연구기관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ILRI는 1995년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 있던 가축질병연구소(ILRAD,1973년 설립)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있던 국제가축센타(ILCA, 1974년 설립)를 병합하여 설립되었다. 현재 케냐 나이로비에 본부가 있으며,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기아,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연구수행을

<그림 1> CGIAR소속 국제 농업연구기관 위치도



연구목표로 설정하였다. 5개 연구과제(조직)로 설정해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표1참조) 필자는 제 5과제의 가축생산연구 중 양돈 영양분야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ILRI는 <그림2>에서와 같이 전세계 10개국에서 연구를 수행중이다.

LRI-India는 인도 남부 하이데라바드라는 도시에서 30km정도 떨어진 국제 아열대 작물연구소(ICRISAT)내에 있다. 여기서는 제 5과제인 가축생산연구 중에서도 가축영양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필자는 공식적으로 이 곳에서 2가지 일을 추진하게 된다.

첫 번째는 인디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인디아 동북부 지역의 “양돈사육 시스템가축”에 대한 자문이다. 이 연구는 인디아 정부가 인디아 양돈 산업의

<표 1> ILRI의 연구조직별 수행연구과제 및 연구수행 장소

연구과제 (조직)	수행 연구과제	연구수행 장소
Theme 1 (축산정책)	Targeting Opportunities	케냐
Theme 2 (지도과제)	Enabling Innovation	케냐, 이디오피아, 인도, 중국, 필리핀, 나이지리아, 버키나파소
Theme 3 (축산경영)	Market Opportunities	케냐, 이디오피아, 미국, 나이지리아, 필리핀, 콜롬비아, 니카라과
Theme 4 (생명공학)	Biotechnology	케냐, 이디오피아
Theme5 (가축생산)	People, Livestock and the Environment	이디오피아, 나이지리아, 인도, 케냐



주요 생산지의 방글라데시 주변 인디아 동북부지역의 양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의 하나로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은 우리와 같은 몽골리아인 사는 지역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양돈 및 관련 산업 진출과 관련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곳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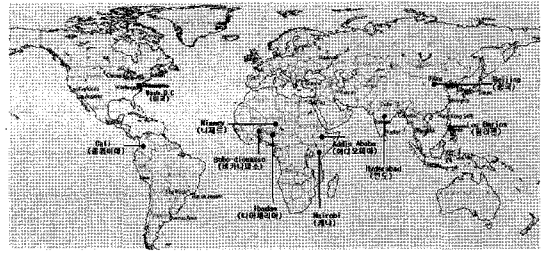
두 번째는 국제농업 연구 총 연합회(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 CGIAR)소속 연구소들인 국제축산연구소(ILRI), 국제 감자·고구마 연구소(CIP),국제 식량 정책 연구소(IFPRI :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와 중국 농업과학원과 베트남 농업연구소가 참여하는 "Enhancing sweetpotato-pig systems in Asia for poverty alleviation"라는 과제에 ILRI의 양돈영양 연구자로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다. ILRI에서는 지금까지 반추기축영양 연구만 수행해 왔기 때문에 ILRI가 공식적으로 단위동물인 양돈영양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필자가 처음이다. ILRI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등 부담이 있긴 하지만, 주어진 기회이기에 열심히 해 볼 생각이다.

### 남부 인디아 안드라프라데쉬주의 하이데라바드 현대와 과거,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인도

인디아의 인구는 10억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게 될 ILRI 인디아는 남부인디아에 속하는 안드라프라데쉬(AP: Andhra Pradesh)주의 하이데라바드(HD: Hyderabad)에서 30km정도 떨어진 Patancheru라는 곳에 있다.

안드라프라데쉬(Andhra Pradesh)주는 크기로 보아 우리나라 남북을 합한 것보다 약간 더 큰 것 같은데, 인구는 8천만정도로 우리나라 남북한이 합

◀그림 2>ILRI 연구수행 장소



한 정도인 것 같다. 이 곳 AP주민들은 지방토착어인 텔루구 언어를 구사하고, 교육을 받는 계층에서는 대부분 인도 북부인들의 사용하는 인도의 공식 언어인 힌두어와 함께 영어를 구사한다고 한다. HD는 인도의 도시 중 비교적 우리나라에 덜 알려진 도시로 생각된다. 현재 8백만 가까운 인구를 갖고 있는 인도에서 5번째로 큰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도시의 명칭을 사이데라바드(Cyderabad)로 바꾸어 부를 만큼 소프트웨어 산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인디아에 대한 내 느낌은 현대와 과거의 상존, 여기저기에 설치해 두고 있는形形色색의 힌두신들 조각상과 소, 돼지, 염소, 개, 닭 등의 동물들이 사람들의 삶의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나라로 "횡경막위의 인간과 비천한 동물이 근본은 같은 동물"임을 생각하게 하는 나라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다. 그리고 백미리가 하나밖에 없거나 전혀 없는 자동차들과 추월할 때는 경적을 울려주세요(Horn Please)라는 문구를 자동차 뒷면에 큼직하게 쓰고 달리는 트럭과 승용차, 세발자동차(오토리차)들과 이들과 함께 도로를 공유하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람과 소달구지를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의 공평하게 공유하는 공동사회"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

게 해주었다.

이와함께, 망치가 세겨진 구 소련의 국기가 휘날리고 있는 빈민촌과 경비원의 허가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한 고급 주택촌이 공존하면서도 폭동이 없다는 인디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 ILRI-인디아, 9백만평에 이르는 대규모의 연구소에 놀라다

ILRI-인디아는 HD에서 30km정도 떨어진 데칸 고원에 자리잡고 있다. 학창시절 지리시간에 배웠던 기억으로는 데칸고원은 그저 황량하고 평평한 돌산을 연상했는데, ILRI-인디아는 9백만평에 이르는 광대한 평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연구소 둘레만 22km로 한 바퀴를 도는데, 승용차로 30분여가 소요되었다. 연구소 주위는 아열대 건조지역에서 잘 자라는 꽃과 과일 나무로 잘 가꾸어져 있었다.

### 인디아의 축산 정보 상세히 보고할 터

필자의 2년간의 ILRI 파견은, 농진청의 쌀, 채소 등에서 이미 파견된 7명의 상주연구원에 이은 8번

째이지만, 축산연구 분야에서는 장기로 파견되는 최초의 상주연구원인 셈이다.

WTO이후 우리나라 축산업도 국내변화보다는 세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축산업과 관련 산업계 및 연구와 지도분야도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인디아는 2016년까지 인디아를 포함한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7개국의 16억 거대 시장을 하나로 묶는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SAFTA: South Asia Free Trade Agreement)를 구상중이다. 이와함께, 인디아는 사료자원 등의 안정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인디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이 참여하는 IBSA(India-Brazil-South Africa)라는 협력체 구성을 적극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2020년이면 중국을 능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BRIC국가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우, 인디아에 대한 투자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덩미를 잡혀 질질 끌려 다니지 않을 수 있는 대안, 즉 중국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외교 전술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적극

<그림3> 소달구지,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가 함께하는 인도



① 시내까지 진출한 소달구지



① 고속도로(?)의 자전거, 오토바이, 리샤와 자동차



<그림 4> 빈민촌과 고급주택가



○ 천막 빈민촌: 방사중인 닭이보임



○ 경비가 있는 고급주택

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산의 경우 인도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갖고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축산분야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농업분야가 중소기업의 경제규모인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에 대한 정보 수집과 진출에 한계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큰 힘이 될지 모르겠으나 필자는 인도에 체제하는 동안 우리나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이 인도에 진출할 수 있는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하는데도 노력할 생각이다. 국내 축산 및 관련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ILRI의 Motto는 축산을 통한 더 좋은 세상 구현 (Better Lives through livestock)으로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동물농업을 적용하여 빈곤, 기아 및 환경파괴를 줄이자(Animal agriculture to reduce poverty, hunger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라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인구의 3분의1이 하루 1불 이하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 상태에 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역시 절대빈곤국

가중 하나로 선진국이 보내준 식량으로 배를 채운 적이 있었다. 이곳의 소위 불 가친 천민들의 사는 움막을 보면서, 언젠가는 그네들도 이러한 악조건에서 벗어나겠지만, 배고픔을 탈출하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경험을 이들에게 전해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그 동안 우리 축산기술도 여타의 농업기술과 마찬가지로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제공하면서 이들과 함께하는 노력도 기우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도 40℃가 넘는 온도와 말라리아 등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이나, 한국인이 갖고 있는 굳건한 정신으로 도전해 볼 생각이다.

오늘은 이것으로 고국의 축산 인들에게 도착 인사를 대신코자 한다. 앞으로 인도축산과 관련 산업, 그리고 축산연구 동향 등에 대한 소식을 정리하여 열심히 전해 드리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⑤